

해남에 동계전지훈련팀 몰려온다

골프·역도·육상 4개종목 예약 군, 동계 스포츠 마케팅 본격화 올 동계기간 4만명 유치 목표

해남군이 동계전지훈련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체육진흥공단의 펜싱팀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말부터 동계전지훈련팀이 속속 해남을 찾아오고 있다.

이번 달부터 본격화될 동계전지훈련에는 펜싱 종목을 비롯해 골프, 역도, 육상 경기팀 4개종목 8개팀, 80여명이 훈련 예약을 마쳤다.

2022-2023 동계 기간 해남군은 육상 20개팀 521명을 비롯해 14개 종목, 130개팀, 1850여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다. 연인원으로는 4만여명에 이르는 숫자이다. 더불어 축구와 레슬링 등 주요 종목의 스토브리그 개최도 예정되어 있어 경기 기간 대규모 선수단이 해남에서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제23회 전국 남녀대학 펜싱선수권대회, 3일부터 7일까지 제19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남녀 종별 펜싱선수권대회가 연달아 열려 1750여명의 선수들이 해남을 찾아 경기를 펼치는 등 겨울 스포츠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해남군은 관광비수기인 동계기간 동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음식, 숙박업소 등의 경기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스포츠마케팅을 올겨울 들어 본격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제59회 춘계 전국 남녀 중·농구연맹전 해남대회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4개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스포츠 행사 재개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해남에서 열린 제23회 전국남녀대학펜싱 선수권대회.

해남군은 코로나19 대응 전국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꾸준히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 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었다.

이같은 노력을 힘입어 해남군은 2021~2022 전라남도 스포츠마케팅 평가에서 4년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기간동안 14개 종목 1만 5000여명, 연인원 9만 8000여명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며 도내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도 해남이 스포츠마케팅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따뜻한 날씨와 맛깔스러운 음식은 물론 적극적인 시설확충을 통한 우수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꾸준한 대외 홍보를 통한 수년간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남군은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춘 우슬경기장, 3면의 축구전용구장, 전국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슬체육관과 종목별 체육관, 수영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및 전천후 실내육상경기장 등이 우슬체육공원 내에 집약되어 있다.

잘 갖추어진 스포츠인프라와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전지훈련팀을 위한 재활캠프 운영, 선수단과의 맨투맨 마케팅 방식의 서비스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스포츠마케팅 운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한반도의 시작, 해남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선수들이 전국대회는 물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다"며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4개 부문 표창

무안군이 다양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기관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사업에서 우수기관 ▲제21회 보건교육경연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금상, 전라남도지사상으로는 ▲2022년 건강증진 신생활동 경연대회 우수상을 받는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군은 군민들의 건강생활실천과 모바일 헬스케어,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구강, 금연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남약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지역 군민의 재할 가정방문 서비스, 자원연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한 결과 장애인 건강보



건강관리사업 부문 우수기관 선정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해 추진한 건강증진사업의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라는 슬로건 아래 잘사는 건강 100세 무안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 달리도 '섬 in 어게인' 사업 추진

한글교실·어반스케치 작품전 개최

목포시가 달리도에서 문화도시 지역문화 활성화 '섬 in 어게인' 사업(사진)을 본격 추진한다. 섬 in 어게인 사업은 사라져가는 섬 문화를 기록·발굴해 고유문화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1차년도 사업대상지는 달리도로서는 5개년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내 섬으로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 달리도에서 젊은 탐방객들이 중심이 돼 기초조사 및 생태조사를 진행했다. 달리도의 형성 과정과 유래, 경관, 달리도 명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음식 문화, 예상치 못하게 달리도에 발이 묶인 과정 등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은 책자로 출간해 목포문화도시홍보관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달리도한글교실'이다. 달리도 일부 주민들이 문맹이라는 조사에 따라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한글 교육을 주



제로 한다. 단기간에 한글을 쉽게 배우는 방법을 기획해 노래·시 쓰기·미술(캘리그라피) 등의 프로그램을 11월말부터 각 3회씩 총 9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또 어반스케치 작품전인 '다시보는 달리도'가 오는 11~16일까지 달리도에서 개최된다. 미술작가들의 시각으로 본 새로운 달리도를 접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달리도를 기록하는 문화콘텐츠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섬 자체가 문화가 되는 프로그램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니 목포문화도시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 '신년 화두' 사자성어

15일까지 공모... '완도 발전' 주제

완도군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신년 화두 사자성어를 공모한다.

공모는 완도 군민(주민등록상 완도군 거주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그동안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 발전을 이룩하자' 등의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를 1인당 1건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접수된 제안서 중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우수상 1건(시상금 50만 원), 우수상 3건(시상금 10만 원)을 선정하며, 내년 1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신년 화두 공모는 국립해양수산물관리유치,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건설,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등 군과 군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를 기반으로 새해에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쓸쓸한 팽목항... 빛바랜 세월호 추모 현수막 방치



지난 5일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8주기 맞아 전 국민의 바람을 담아 내걸었던 세월호 추모 현수막들이 바닷바람에 찢기고 빛바랜 채 방치돼 있다. 세월호 추모 현수막은 시민들이 노란색 현수막에 들어갈 문구를 직접 선택해 제작했는데,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나뒀구는 현수막들로 인해 쓸쓸하게 보인다.

/진도=이중수 js7777@kwangju.co.kr

영광군, 10개 기관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영광군이 최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군·경·소방·교육청 등 10개 기관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비상계획구역 내 관내학생을 안전지역인 구호소로 대피하는 것으로 비상단계별 상황결과, 교통통제, 방사능오염검사, 구호소 운영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주민소개 시 적색비상이 발령되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인 원정 반경 3~4km 이내 흥농서초등학교, 흥농초등학교 학생과 흥농읍 주민들이 1차로 대피하고, 비상상황이 확대됨에 따라 긴급보

호조치구역에 위치한 범성초등학교 및 7개 읍면 주민들이 2차 대피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학원 방사능방재분야 전문가가 방사능 기초지식, 방사선비상시 행동요령 등 이론교육 및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주민보호용품 착용·탈의 교육도 진행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매뉴얼에 보완하며 이를 향후 훈련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광=이중수 기자 jylee@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